

SK, 사회적 일자리 자립 지원

SK그룹은 최근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사회적 기업가와 NGO(비정부기구)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12월13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소외계층 등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병, 집수리, 청소, 도시락 배달 등 공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SK는 “사회적 기업가가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영, 경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르쳐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극복국민재단, 행복나눔재단과 공동으로 모두 36명을 선발해 12월8일부터 사회복지·경영이론과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12월부터 2007년 2월, 6-8월 등 모두 6개월간 진행되며, SK는 수강료 250만원의 65-85%를 지원한다.

SK는 앞으로 매년 2차레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을 정례화하고 부산대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영국, 이태리를 방문해 성공사례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 결식계층을 돕기 위한 <행복도시락> 배달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가 등도 출장취폐, 유료도시락 사업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4>